

손흥민, 이상 호날두 앞에서 골대 강타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토트넘, 유벤투스에 3:2 승리
팀 라멜라의 선제골 시발점...호날두, 1골 터뜨려

손흥민(27·토트넘)이 이상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와의 맞대결에서 가벼운 볼놀림을 선보였다. 손흥민은 21일 오후 8시30분(한국시간)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유벤투스와의 2019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ICC) 첫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전반 45분만 소화했다.

이날 경기는 손흥민과 호날두의 두 번째 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손흥민은 어려서부터 호날두를 이상으로 삼았다.

두 선수가 격돌한 것은 1년9개월 만이다. 2017~2018 유럽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 H조 조별리그에서 만났다. 당시 호날두의 소속팀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였다.

그러나 2017년 10월18일 조별리그 첫 대결에서 손흥민이 후반 44분 교체 투입된 탓에 그라운드에서 대결한 건 4년에 그쳤다. 같은 해 11월2일 두 번째 대결에선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다.

이날 손흥민은 골대를 때리고, 선제

골에 관여하는 등 가벼운 볼놀림으로 페조의 컨디션을 뽐냈다.

전반 31분 터진 에릭 라멜라의 선제골이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됐다.

손흥민은 역습 기회에서 서두르지 않았다. 상대 수비의 움직임을 살피며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트로이 패럿에게 연결, 패럿의 오른발 슈트를 유도했다.

골키퍼 부폰의 손에 걸렸지만 흐른 공을 쇄도하던 라멜라가 가볍게 밀어 넣었다. 손흥민의 여유로운 플레이가 크게 기여한 장면이다.

손흥민은 앞서 경기 시작 4분 만에 강력한 왼발슛으로 왼쪽 골포스트를 때리는 등 위협적인 장면을 여러 차례 연출했다. 9분에는 옆 그물을 때렸다.

이에 반해 호날두는 전반 11분 결정적인 슈트를 시도했지만 수비수 몸에 걸렸고, 27분에는 페널티박스 왼쪽 모서리 지점에서 노마크 기회를 잡았지만 슈팅이 아쉽게 골대를 외면했다.

토트넘은 전반 31분 라멜라의 골에 힘입어 전반을 1-0으로 앞서며 마쳤



다. 손흥민은 전반 종료 후에 호날두와 유니폼을 바꿔 입어 교체를 예고하게 했다.

호날두는 손흥민의 활약을 보고 후반에 답했다. 후반 12분 곤살로 이과인의 골로 균형을 맞춘 뒤, 호날두가 전세를 뒤집었다.

후반 15분 땅볼 크로스를 눈스톱슛으로 연결했고, 토트넘 수비의 몸에 맞고 골라인을 통과했다.

프레시존 성격의 대회인 만큼 토트넘은 승부보다 선수들을 점검하는데 집중했다. 최근 영입한 은돔벨레를 투

입했다. 답답했던 토트넘의 공격에 숨통이 트였다. 기어이 후반 20분 모우라가 다시 동점골을 터뜨렸다.

2-2로 팽팽한 후반 추가시간에는 해리 케인이 해결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모우라가 빼앗은 공을 기습적으로 때려 결승골을 기록했다. 골키퍼가 골대를 비운 것을 파악하고 짚짜게 때린 게 적중했다.

토트넘은 2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2차전을 갖는다.

뉴시스

추신수, 3년 연속 100안타 달성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7)가 3년 연속 100안타를 날렸다.

추신수는 22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미니트 메이더 파크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원정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해 4타수 1안타 2삼진을 기록했다.

최근 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 시즌 100안타 고지를 밟았다. 3년 연속 100안타 달성이었다. 통산 9번째 100안타 시즌이다. 시즌 타율은 0.284.

1회말 투수 앞 땅볼로 물러난 추신수는 3회 1사 1루에서 휴스턴 선발 로제리오 아르멘타로스의 커브를 받아쳐 중전안타를 만들어냈다. 이후 대니 산타나의 안타로 2루를



밟았지만 후속 타선이 터지지 않아 득점에 실패했다.

추신수는 이후 타석에서는 모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텍사스는 3-5로 패했다. 7연패를 당한 텍사스는 시즌 50승 49패를 기록해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공동 3위에서 4위로 내려앉았다.

뉴시스



남자 사브르 대표 선수들이 21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2019 세계 펜싱 선수권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우승, 시상대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고 세계 선수권 '3연패'를 의미하는 손가락 세 개를 펴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구본길, 하한솔, 오상욱, 김준호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세계랭킹 1위)은 헝가리에 45-44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세계선수권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한국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 세계선수권 단체전 3연패 위업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3연패를 달성했다.

구본길(30·국민체육진흥공단), 오상욱(23·하한솔(26·이상 성남시청), 김준호(25·화성시청)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21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19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홈팀 헝가리를 45-44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은 2017년과 지난해 김정환(국민체육진흥공단), 구본길, 오상욱, 김

준호가 호흡을 맞추며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멤버가 한 명 바뀐 올해도 정상을 지켰다.

한국 사브르 단체는 세계 펜싱 최초로 대회 3연패를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오상욱은 개인전에서 우승하며 세계랭킹 1위로 올라선 데 이어 단체전에서도 동료들과 우승을 합작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한국은 폐막을 이틀 앞둔 현재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종합 1위를 달리고 있다.

황의조, 보르도 이적 후 첫 경기...30분 활약



황의조(27)가 보르도 유니폼을 입고 프레 시즌 첫 경기를 했다. 팀은 2-1로 이겼다.

황의조는 22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의 아우디 필드에서 열린 몽펠리에와 친선경기에서 후반 15분 교체 투입돼 약 30분을 소화했다. 후반 29분 과감한 슈팅을 시도했

다. 지미 브리앙이 페널티박스 안에 있던 황의조에게 공을 찼고, 황의조가 이를 오른발로 마무리했지만 크로스 바를 크게 넘쳤다.

하지만 수비진과 경합 등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 했다. 팀은 2-1 승리를 거뒀다.

18일 보르도의 전지훈련지인 워싱턴으로 간 황의조는 메디컬 테스트와 계약서 서명을 모두 마치고 보르도의 멤버가 됐다. 계약기간은 2023년 6월까지 4년이다. 등번호는 18번이다.

보르도는 "구단에서 뛰는 첫 번째 한국 선수"라고 소개하며 "공간 침투와 슈팅 능력이 좋다. 그라운드에서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3년 프로축구 성남 일화현 성남FC에서 K리그 무대에 데뷔한 황의조는 2017년 6월 일본 J1리그 감바 오사카로 이적했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몸값이 올랐다. 중동과 중국 그리고 미국 무대의 러브콜을 받았지만 유럽 무대 도전을 위해 모두 거절했다.

보르도는 지난 시즌 리그와 20개 구단 중 14위에 머물렀지만 과거 지네딘 지단, 요양 구르퀴프 등 프랑스 국가대표 선수들을 다수 배출한 팀이다.

팀 K리그, 유벤투스전 빨-검-빨 유니폼 입는다

오는 26일 서울서 친선전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6일 열리는 유벤투스와의 친선전에 나설 팀 K리그의 유니폼을 공개했다.

K리그 스폰서인 아디다스가 제작한 유니폼은 K리그를 상징하는 강렬한 빨간색을 바탕으로 왼쪽 팔에 K리그 패치를 부착했다.

유니폼 모델은 필드 플레이어 중 1위로 팬 11에 뽑힌 대구의 세징야다. 세징야는 최근 "호날두와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고 친선전에 임하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빨간 상의와 더불어 '하니원큐 팀 K리그' 선수들은 검은 하의와 빨간 양말을 착용, 빨-검-빨 유니폼을 입게 된다.

한편, 친선전 매치볼은 올 시즌 K리그 공인구인 아디다스 컵넥스트19로 결정됐다.

뉴시스

자연의 숨겨진 매력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진정,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란 구래군은 지리산순천, 창새미골, 회연사, 선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가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